



이석기 파동후 중복논란·분당... 지지율 하락

진보정당, 광주·전남서 왜 몰락했나?

지방의원 19명 배출 그쳐... 2010년 절반 새정치 당지도부 광주 올인도 영향 미쳐

전국적으로 진보정당의 강세지역으로 통하는 광주·전남에서 진보정당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이 광주·전남에서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후보 144명을 냈지만, 당선자는 출마자의 13%에 불과한 19명에게 그쳤다. '이석기 파동'에 이어 중복 논란과 정당해산 심판 후폭풍으로 당세가 위축된 통합진보당의 추락이 두드러졌고, 정의당과 노동당도 기성 정당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 때 광주·전남에서 총 39명의 광역·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 광주에서 첫 지역구 시의원 1명을 배출했고, 전남에서는 2명의 지역구 도의원이 당선됐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광주에서 10명, 전남에서 14명이 당선되면서 광주·전남에서 통합진보당 '돌풍'을 일으키며 전국의 '진보정당 1번지'로 떠올랐다. 또한,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일당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풀뿌리' 대안정당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광주시의원 전 선거구 19곳에 후보를 모두 내고 첫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뛰었지만, 단 1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이미옥 후보 1명을 비롯, 남구의회 선거 배진하 후보 등 구의원 9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특히 5개 자치구 기초의회 비례선거에서는 단 한명도 당선시키지 못하는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전남지역 성적표는 더욱 초라하다. 오미화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1명을 포함해 기초의원 4명만이 당선됐고, 기초비례 선거에서 여수와 순천, 해남에서 각각 1명씩을 당선시켰다. 정의당은 광주·전남에서 19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목포에서만 기초의원 2명(비례 1명 포함)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특히 현직인 강은미 광주시의원도 재선에

전에 나섰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주경남 후보에게 패배했다. 노동당은 11명의 후보가 나섰지만, 단 한석도 건지지 못했다. 4년 사이 진보정당의 성적이 크게 떨어진 것은 '이석기 파동' 등으로 진보정당의 '분화' 등으로 인해 당세 위축을 가져오면서 광주·전남에서 정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던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는 광주시장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광주에 당 지도부와 당직자 등 당력을 파부하면서 기초의원 선거에까지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자치선거 특성상 지방정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당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정당 후보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입하지 못하면서 일당 독점 패배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 광주시의원 '여성 선거구' 모두 승리

첫 도입 일단 합격점... 전문직 등 인재 영입은 낙제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첫 도입한 광주시의원 '여성 전용 선거구'에서 나신 여성 후보들이 모두 승리를 거둬 일단 '합격점'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여성 선거구'를 지정하는 과정에 남성 후보들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은 점, 전문직 및 여성 정치 신인들의 외부 영입이 없었다는 점은 '낙제점'이라는 지적이다. 6·4 지방선거 개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 선거구'에 나신 여성 후보 4명

이 모두 당선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동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의 선거구 1곳씩을 여성 선거구로 정했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표발을 누렸던 일부 남성 후보들이 다른 선거구로 옮겨가거나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광주 서구 4선거구에서는 새정치연합 주경남 후보가 52.30%의 득표율을 기록해, 36.71%를 얻은 정의당 강은미 후보를 꺾고 시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강 후보는

현직 시의원이었고, 주 후보는 서구의회 비례의원이었다. 전직 남구의회 의장거리 성 대결을 벌였던 남구 2선거구에서는 새정치연합 유정심 후보가 65.80%로, 무소속 권용일(34.19%) 후보를 높은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북구 4선거구의 새정치연합 전진숙 후보도 53.91%의 득표율을 얻으며, 전직 시의원이었던 무소속 이상동 후보(26.40%)를 '더블스코어'차이로 누르고 시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광산구 3선거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옥자 후보가 51.98%로, 24.34%를 얻은 무소속 채중순 후보를 눌렀다. 채 후보는 광산구의회를 지내고 이용섭 전 국회의원의

언론특보를 받아 바닥 민심이 좋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어 닥친 새정치민주연합의 '돌풍'을 막지는 못했다. 예초 새정치연합 경선과정에서 '여성 선거구'가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남성 후보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여성 가산점도 주는데, 또 여성 선거구를 도입해 두 번의 혜택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여성 선거구 도입을 통해 여성 정치신인들의 '등용문'이 되거나 전문가 그룹의 외부 영입 등이 있어야 했는데 경선일에 쫓겨 급하게 추진하면서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체급 낮춰 출마한 후보들 줄줄이 탈락

6·4 지방선거에 체급을 낮춰 도전장을 낸 후보들의 대다수가 고배를 마셨다. 국회의원과 군수 선거에서 연거푸 쓰디쓴 패배를 맞본 진도의 곽봉근 후보는 선거체급을 대폭 낮춰 군의에 도전했지만, 또 다시 낙선했다. 지난 34년 간 국회의원의 선거 3번, 군수 선거 4번 등 총 7차례 도전에서 모두 실패한 그는 이번에 진도군의외 가선거구에 새누리당 옷을 입고 출마했지만, 3.91%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여당 불모지'인 데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반(反) 새누리당 정서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한승주 전 전남도 의원에 체급을 낮춰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득표율이 5.1%에 그쳤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의원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해 광주 북구의회 마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순영 후보도 12.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또한, 시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광주 서구의회 가선거구에 도전한

김수영 후보도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후보에 밀려 탈락했다. 전남도의회를 지낸 김상배 후보도 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여수시 기초의원에도 도전했지만 지지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무소속의 한계를 절감했다. 4년 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전남도 의원에 도전장을 냈다가 아깝게 낙선한 농민회장 출신 주경재 후보도 체급을 낮춰 이번엔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영광군의회에 도전했으나 득표율 13.3%, 5위로 고배를 마셨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16번째 도전해 낙선한 다음 체급을 낮춰 광주 남구청장에 도전장을 던진 강도석 후보도 두자릿수(15.8%)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76.6%의 표를 끌어 담은 새정치민주연합 최영호 현 청장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국민참여당 후보로 광주 동구청장에 출마했다가 민주당 유태명 후보에 패한 임택 후보는 이번엔 광주시의원에 도전, 73.7%의 득표율로 무소속 김종민 후보에 압승했다. 제7대 전남도의회를 역임한 김상현 후보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진도군의회 선거에 출마해 같은 선거구 14명 중 1위로 군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투표함도 줄었어요 제6회 전국지방선거 광주시 서구선거구 개표소로 지정된 빛고을 체육관에 지난 4일 투표함이 도착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知識을 넘어 智慧를 공유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님들의 6.4 지방선거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p>전라남도</p> <p>교육감</p>  장만재	<p>순천시장</p>  조충훈	<p>광양시장</p>  정현복	<p>동구청장</p>  노희용	<p>남구청장</p>  최영호	<p>광산구청장</p>  민형배
<p>전라남도</p> <p>강진군수</p>  강진원	<p>담양군수</p>  최형식	<p>완도군수</p>  신우철	<p>화순군수</p>  구충근	<p>전남도의원</p> <p>곡성군</p>  조상래	<p>보성군</p>  임명규

KWANGJUILBO LEADERS ACADEMY

광주일보사 / 제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 일동 /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 일동